

결혼의 우선권

성경말씀: 엡5:18-33, 엡5:31

복습

결혼 시리즈, 지난 번, 결혼의 목적

창조 때에 첫째 결혼이 생긴 이유를 살펴보면 목적을 알 수 있다.

창세기 2장 18절: 성경에서 처음으로 “좋지 못하다”(not good)는 말이 나옴. 그 이유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 형상은 곧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존재임을 보여 준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만으로는 완전해 질 수 없다. 그래서 낙원에서도 고독은 문제였다.

그러므로 돈, 명예, 지위, 학식 등으로는 가족과 친구 관계를 대체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합당한 조력자’(help meet)를 창조하셨다.

이 여자를 보고 아담은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다”라고 탄성을 지름(23절).

합당한 조력자: 남편과 아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동반자요 친구여야 한다.

1. 지속적이다(잠17:17). 언제나 사랑한다.
2. 투명하고 정직하다. 격려한다. 비판한다(잠27:5-6).
3. 공통 관심사와 목표를 가진다.

친구의 사랑은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앞에 있는 목표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으로 기뻐한다.

사회적 계급, 기질, 문화, 인종 등이 달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공통점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다.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같은 여행길에 올라 같은 종착역을 향해 간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고후5:17)

바울은 자기의 신부인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말하며 26절에 그 목적이 교회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26절). 아름다움 속에서 교회를 제시하는 것

예수님은 우리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거룩하고 영화로우며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

결혼의 목적은 서로를 도와서 배우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

공통의 초점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왕좌, 점도 흠도 없는 우리의 새 사람에 맞추어져야 한다.

바로 이것이 결혼의 가장 큰 목적이다. “결혼의 우선권” 31절

결혼의 우선권

결혼을 최고의 우정 관계로 본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점을 내포하고 있다.

배우자를 단순히 섹스 파트너나 제정 파트너로 생각하면 결혼 밖에서 여러 가지를 추구하게 된다.

자녀, 부모, 직업, 정치 및 사회 참여, 취미, 친구들 사귀는 것에 혼을 쏟게 된다.

이것들이 기쁨을 주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결혼이 파탄난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우선권을 주지 않음을 보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배우자가 가장 친한 친구라면 결혼과 가정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엡5:31에서 바울은 창2:24를 인용한다.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육체가 될지니라.”

기존의 것을 두고 떠나는 것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

서구 세계에서는 이것이 당연하지만 특별히 동방예의지국인 한국 같은 데서는 문제가 있다.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부모 자식 관계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다.

그래서 부모를 기쁘게 하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 주는 것이 자식의 마땅한 도리이다.

그래서 부모나 조부모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부모를 존경하는 것은 마땅하다.

사실 청년기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모습을 형성시킨 것은 부모 자식 관계이다.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모든 것이 시작되는 창세기의 첫 시점에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신다.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야 한다.”

즉 남편과 아내는 새로운 한 개체로서 상대방에게 최우선권을 두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당신은 사랑과 에너지와 근면함과 당신의 모든 것을 우선 배우자에게 주어야 한다.

배우자를 대체하는 것들

음주, 흡연, 음란물, 외도 등에 의해 결혼이 파괴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런 나쁜 일이 아니라 중요하고 좋은 일들에 의해 결혼이 파괴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좋은 일들이 배우자보다 더 중요하게 되면 결혼에 문제가 생긴다.

아내: “제 남편에게는 시부모님의 의견이 제 의견보다 항상 더 중요해요. 그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저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남편: “제 아내는 아이들만 챙겨요. 아이들 교육, 각종 프로그램, 활동 등에만 관심이 있어요. 제가 말하면 건성으로 대답해요. 아내로서의 역할보다는 엄마로서의 역할에 더 비중을 두고 있어요.”
“직업을 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요. 거기에만 온 에너지를 소모하고 제게는 관심을 두지 않아요.”
배우자가 이렇게 느끼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많은 부부들이 “떠나는 일” 하지 못해서 배우자와 하나가 되지 못한다.

부모의 경우: 그들을 기쁘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 엡6:1-2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배우자와의 관계에 영향을 주게 되면 결혼에 문제가 생긴다.

우리 집의 경우: 유학, 교회 선택

어떤 경우는 부모를 미워하는 것에서도 떠나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

“아이들을 교회에 안 데리고 와요. 어릴 때 부모님이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것이 아주 싫었습니다.”

“그 사람과 결혼할 수 없어요. 그를 보면 제 아버지가 생각나요.”

배우자를 정할 때 그 사람 전체를 고려해야 하고 나와 어떤 관계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부모와의 나쁜 관계를 배우자에게로 확대시켜서는 안 된다. 떠나야 한다. ★★★

많은 부부들이 실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툰다.

어디서 어떻게 휴가를 보낼까? 어떻게 아이들을 훈련시킬까?

이럴 때 자기 부모의 방식대로 하고 있는지 조심해 살펴보기 바란다.

내 집에서 하던 방법이 아무리 유용해도 당신의 배우자에게 그것이 맞는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했으니 나도 그렇게 한다고 주장하면 문제가 생긴다.

서로 결혼하면 둘이 하나가 되어 합의하여 새로운 방법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집을 떠난 것이 아니다.

부모에게 너무 많은 것을 약속하면 문제가 된다.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약속하면 문제가 된다.

요즘은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는다. 버릇없는 아이들을 양산한다. 김구라, 김용민

부부 간의 사랑이 식은 것을 부모 자식 간의 애정으로 교체하면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되면 가정이 흔들리기 시작하며 모두가 어려워진다.

사례: 엄마가 딸아이에게 음악 레슨을 무리하게 시킨다. 남편이 싫어할 정도로.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을 통해 이루어서 대리 만족을 얻으려 한다.

이 경우도 결혼이 파괴된다.

부모가 즐거운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가장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

딸을 남편보다 앞에 두면 딸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다.

“정말로 딸을 위한다면 남편을 위한 좋은 아내가 되세요. 그것이 딸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결혼의 능력

결혼은 구원과 비슷하고 부부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비슷해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혼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구원은 거저 시작되는 출발점이다.

옛 것들은 다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고후5:17).

복음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영적 배우자인 예수님과 부부 관계를 맺는다.

그래서 그분께 모든 우선권을 둔다.

예수님은 모든 배우자가 요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나를 중심에 뒀라.”

결혼도 마찬가지이다. 결혼과 배우자를 중심에 두지 않으면 어렵다.

엡5:28,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 같이 사랑해야 한다.

바울은 모든 일에서 건강이 기본임을 강조한다.

돈 버는 것이 행복이라고 여기고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운동도 안 하고 지낸다.

돈을 벌지만 심장마비로 재산을 유용하게 쓰지 못한다.

즉 행복을 건강보다 앞에 두면 행복할 수 없다.

부자들이 건강을 잃으면 하는 말: 건강이 돈보다 낫다.

바울은 결혼을 건강과 비교한다.

이미 결혼한 경우 결혼은 모든 관계의 근본이다.

결혼하면 하나님이 창시한 틀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결혼을 당신의 주장대로 이끌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결혼이 하나님의 창안물이기 때문
그분께서는 결혼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주된 관계가 되도록 설정하셨다.

결혼을 방해물로 여기고 둘째 셋째 관계로 두기 시작하면서 배우자가 적응해 주기를 바라면 문제
결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결혼의 능력 때문이다.

결혼은 당신의 삶의 여정을 정해 준다. 아합과 이세벨(왕상16:29-33)

결혼이 행복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이겨 낼 수 있다.

세상을 뚫고 나갈 수 있다.

결혼이 불행하면 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 삶의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

결혼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결혼을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

결혼의 우선으로 생각하고 그 목적을 성화로 둘 때의 변화

이렇게 결혼에 우선권을 두려면 부부가 영적으로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결혼한다.

그리스도인과 결혼한 것을 자축한다.

이들은 믿음이 같은 것으로만 만족한다. 취미나 흥미가 같은 정도로 인식한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우정 관계가 아니다.

영적인 우정 관계는 서로를 도와서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섬기고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이다.

바울은 결혼의 목적이 성화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26, 27절).

어떤 부인의 이야기 “결혼은 행복한 것이 목적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열심히 일해야 하는 거네요.”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맞는다. 그러나 바른 결혼을 위해서는 많이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안에서 생성되는 것을 뜻한다.

성령의 열매(갈5:22-25)

바로 이것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함께 우리 안에 형성될 때 서로가 받은 은사와 부르심은 달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